

〈구역모임 교재 / 2025년 9월 21일 주간〉
“ 한 마음을 품기 위해 필요한 것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빌립보서 2장 1~4절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눅 7~8장)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등이 담겨 있으며, 8장에는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함께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인물들을 비유로 가르치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눅 9~10장)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예고하신 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다룹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칠십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이 돌아와 기뻐할 때 겸손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더 큰 기쁨이 됨을 강조하시고,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이웃 사랑'의 비유를 통해 참된 이웃을 정의하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수요일(눅 11~12장)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귀신 축사와 예수님의 신성 권위에 대한 비난에 답하며,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므로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며 깨어 근신할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목요일(눅 13~14장) 회개를 촉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권면하며, 율법보다 사랑과 섬김을 우선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14장에서는 잔치에 청함 받은 자와 초청하는 자들을 통해 겸손과 사랑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금요일(눅 15~16장) 세리, 죄인들을 가까이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탕자 아들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며,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토요일(눅 17~18장) 작은 죄와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며,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되지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감사함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의인과 악인 모두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이웃을 돕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신 사건과 장차 있을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일(눅 19~20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사역, 그리고 그에 대한 권위 질문을 다룹니다. 19장에서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이 변화되고, 므나의 비유를 통해 종말과 심판 원리를 가르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악한 소작농의 비유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설명하고, 사두개인들의 부활 질문에 답하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마음을 같이하고 한마음을 품게 하소서.
2.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소서.
3.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22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윤석 전도사)